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11월 20일(금) --(음력 10월 6일)-- Пятница 20 ноября 2020г. № 45 (11691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SNS공모전' 개최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가 11월 13일(금) 지난 7~10월 간 진행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SNS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내가 아는 한국, △한국과 러시아 문화 소개, △한국과 러시아(사할린) 간 협력 방안 주제의 공모전에 총 29명이 157개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그중 9명이 수상(금/은/동상 각 1명, 장려상 2명, 입상 3명, 특별상 1명)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특별상(공로상)은 경쟁 부문과 별개로 한·러 수교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작품 및 SNS 활동을 해오신 새고려신문사의 이예식 사진기자님께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주최 측에서 밝혔다.

곽기동 출장소장은 수상식에서 공모전 참가자들과 같은 민간의교관들의 활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꾸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향후 지속적 유대관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사이트에서 전했다.



▲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가 개최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SNS 공모전'의 시상식에서.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제공)

## 사할린 보건소에 코로나19 응급 진단 키트 1만 개 보급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주 보건소를 위해 코로나19 응급 진단키트가 보급된 가운데 이 명목으로 1600만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응급 진단키트는 감염 확진 사실을 몇 분만에 밝혀내기 위함이다.

현재 코로나19 진단키트가 3일에서 1주일이 걸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민들은 코로나19 진단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을 염려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주지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진단키트는 8분 내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밝혀낸다. 이로써 치료의 속도를 높이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주지사가 전했다.

사할린주의 특별 조치 속에 지역의 의약품도 확보하고 있다.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에 따르면 주민들 가운데 알려진 '아르비돌' 약품은 현재 '파르마치야' 국립 약국 연결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약품류 확보를 위해 공급자와 직접적 협상할 예정이며 주내에 10일 내로 1만 개의 항바이러스 약품을 공급할 전망이라고 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약품 '아르비돌'은 저장고에 충분히 확보돼 있으므로 필요 이상 구매해 비축하지 말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예방 차원의 복용도 권하지 않는데 이는 지속적 복용으로 면역체계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 "2020- 아빌림픽", 사할린에서 개최

'2020-아빌림픽' 제6회 전국 장애인 기능 올림픽대회 결승전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사할린주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원격 영상 대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83개 지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77개의 전문 기능에 따라 학생, 대학생, 전문가 세 부류로 나뉘어 교육단체 행사장에서 경쟁하게 되며 전문가들도 원격으로 현장 영상을 통해 참가자들의 작업을 평가한다. 결승전에 사할린주에서는 22개 전문 기능에 34명이 참가한다. 이는 '로봇 공학', '비즈 공예', '클리닝(청소)', '뜨개질', '자수 공예', '코바늘 뜨개질', '목공', '중철제본', '도공예', '케이크 장식', '제과', '페인팅', '요리', '재봉', '웃감 재단', '조경 디자인', '자료 관리', '애니메이션 인물 디자인', '서류 관리 및 보관', '미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제작', '전자장비 분해 조립'이다.

11월 23일 방송으로 경기를 개막하고 결승전 진행 상황은 '아빌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 사할린의 여성 14인에게 '모성의 영광' 메달 수여

2020년 '모성의 영광' 메달을 사할린의 여성 14인에게 수여한다. 이 상은 자녀 5명 이상(이 중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함)을 양육한 어머니에게 수여한다. 수상 부문에는 입양아 양육도 고려한다.

수상자는 스미르니 지역의 라리사 알라티레와(자녀 11명),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지역의 빅토리아 바이코와(자녀 10명), 포로나이스크 지역의 김명숙(자녀 5명)이다. 지역 법에 따르면 이 여성들에게 일시금 1만8680루블이 지급되고 의료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2년에 1회 사할린 요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 사할린주, 코로나19 확진자 약 1만명

사할린 주내 11월 18일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는 120명이고, 퇴원자는 152명.

11월 18일 기준 사할린주에 총 확진자 수는 9917명이고 이 중 6686명이 퇴원, 사망자 5명, 치료 중인 환자는 3228명이라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단신

### 사할린에 신형 철도버스 3대 도착

이 철도버스는 사할린 주민들의 바람을 고려해 생산되었다. 차량 내부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좌석과 좌석 사이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고 향상된 난방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다.

최신형 철도버스 노선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포로나이스크와 토마리까지 운행하고 한 차량은 사할린의 서쪽 해안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철도 측은 12월에 열차 운행 계획을 밝혔다. '오를란' 3량의 철도버스 2대와 2량의 철도버스 1대는 모스크바주 미치쉬시에 있는 <메트로와곤마쉬>기업이 생산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유즈노쿠릴스크와 쿠릴스크, 오하까지 항공편 운항

오로라 항공은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새로운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주요 노선의 추가 지원과 운항 횟수 증가에 대해 수많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지사가 결정을 내렸다. 이투루프와 쿠나쉬르헨 항공편은 일주일에 4번, 오하까지는 일주일에 3번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었다.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으로 올 11월과 12월에 추가 항공편이 도입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오하행은 매일 운항된다.

## 새고려신문

##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주목: 사할린 한인문제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하여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외교부 공고 제2020-10호]에 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외동포연구모임(한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 세부의견은 아래 제3항 참조

### 2. 기본사항

제출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재외동포 연구모임)

대표자 : 김도형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대덕빌딩 2층  
전화번호 : 02-522-7284

### 3. 세부의견

가.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입법 예고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총 5개 조문이며, 1조(목적), 2조(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신청 등), 3조(지원 여부 결정), 4조(업무의 위탁), 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구성.

나. 문제점

(1)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불분명 해소 필요

○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할린 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최초 입법취지와 달리 축소해석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2항에 따른 '동반가족'의 범위에 기존 입법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제2차관(이태호)은 2020. 3. 3.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문언상으로도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영주귀국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 시행령 과정에서 원래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서는 법 제2조 제2호 '동반가족' 범위와 관련하여 시행령 단계에서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가족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음.

○ 결국, '동반'이란 규정의 해석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생존해서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와 그 가족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는 최초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의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반대함.

○ 동포들은 수교이전 사망한 사할린 1세와 그 직계비속, 수교이후 영주귀국 하여 사망한 1세와 그 직계비속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강제로 거주지와 국적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동포들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역사적 필요성에 비추면, 사망과 생존 여부를 기준으로 법 수혜자를 나눌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고, 이러한 기준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2) 국적취득 절차 간소화 관련 시행령 규정 필요

○ 입법 예고된 지금의 시행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실행절차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할린 동포법의 입법취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들,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던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국민으로서 지위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첫 단계로 국적취득 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 동포들은 이러한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한번 포기한 국적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외동포 거소신고 및 국내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외공관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법무부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

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할린 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적취득 및 회복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3)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 내용 필요

○ 사할린 동포법에서는 '사할린 동포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음.

○ 사할린 동포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은 1회성 전시사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사할린에 잔류한 사할린 한인 1세대와 미래세대인 차세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사할린 동포법을 만든 취지이자 근본 원칙임.

○ 사할린 동포들은 사할린에 남은 후손과 한국, 전 인류가 사할린 동포의 뼈아픈 강제이주 역사를 잊지 않도록 '사할린 한인역사기념관'이 건립되기를 바램. 또한 정부는 2005년부터 사할린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미온적임. 동포들에게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도덕적·물질적 피해보상 지급 및 우편지급 반환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지원이 절실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고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사할린 동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4. 결론

이러한 사항이 반영 · 개선되지 않는 지금의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임.

2020. 11.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외동포연구모임

## 사할린 동포의 의견

### 사할린 동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시청 소감 2020 - 한국의 사할린 동포법으로 만들어지는 사할린 동포의 이산가족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할린 동포 문제를 1세에만 한정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을 논할 때마다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경계선을 긋지 말라고 부탁해왔다.

그런데 지금 사할린 동포를 위해 해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결정들은 한 민족에게 가하는 민족 단절로 밖에 간주되지 않는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우리 부모들과 우리 형제들은 고향땅으로 돌아가 묻히겠다고 그리 문을 두드렸는데 무시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가정을 세대로 나누어 영주귀국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으며 우리 가족들을 다시 쪼개놓는 일을 하는 한국 정부에게 울게 하는 일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

오늘까지 지구상에 어느 한 나라도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일은 인류 규모의 국제 형사사건에도 저촉되는 일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민족의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듣고 본 11월 5일(목)에 열린 간담회 분위기에서 이것을 분명히 느꼈다. 우리를 추려내고, 세대로 나누어 영주귀국을 고려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끄러운 일인데도 회의에 참석한 한국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만일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가정을 세대로 나누어 가정을 이산시키는 어떤 해결책을 말했다면 간담회의 결정은 결단코 달라졌을 것이다. 인간의 무관심으로 한 핏줄인 자기 민족을 이렇게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부끄럽다.  
도대체, 사할린 동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금 사할린에 남아 있는 3만 명 정도 되는 한국 백성을 귀국시킬 수 없는 형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제국의 합병정치 정신에서 아직까지 벗어나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잡혀 갔으면 잡혀 간 것이고, 조선에 살아남았으면 다행인 것이고, 어찌할 수 없이 무관심하고 살던 시대)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인간다운 해결책을 내놓아야 우리들도 75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변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도 나온다.

인구 5천만 명의 한국이 3만 명되는 (0.06%) 자기 백성을 못 불러 간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는 점이란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만일에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가 100%로 다 귀국한다면 0.1%도 되지 않는 숫자를 못 받아주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사할린 동포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리고 누가, 우리에게 언제, 어떤 악을 가져 왔는지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조차도 그들은 이런 민족적 단절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전개되는 일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인간의 삶과 운명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

정말 인간적인 답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사할린 동포 이채인  
12.11.2020

주목: 사할린 한인 문제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하여 사할린 동포 단체장들의 의견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사할린 연합회 제안

외교부 재외동포과 귀중

2010년 결성된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 연합회(사할린 연합회)는 현재 전국 19개 시군에 있는 25개 지역 사할린 동포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 시 지역 단체장들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한 사할린 연합회의 아래와 같은 의견을 검토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귀국한 사할린 동포 1세와 동일하게 앞으로 영주 귀국 하게 될 2세에게도 복수국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할린 연합회는 또한 귀국해서 생활하다 사망하신 부모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도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8.  
사할린 연합회장 권경석

## 호소문

2020.10.12.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한민국 국회 의장 박명석 귀하!

전 사할린 동포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할린 동포의 문제는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일제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모두 사할린 동포를 외면해 왔으며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강제이주 1세대들이 운명을 다해 세상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은 미룰 수도, 미루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할린 동포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요청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를 1945년 8월 15일생 이전 이후로 나누는 것은 사할린 동포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인간적 결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타국인 사할린으로 끌려간 분들과 그 후손들은 모두 사할린 동포들입니다.

모든 사할린 동포들에게 가족관계 등록 및 러시아 연방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할린 동포들을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할린 동포 어른들 4천 명 이상이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45년 8월 15일생 (1세)이후만 귀국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비인간적인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천여 명만 살아계십니다. 상당수 어른들이 무연고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할린 동포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 어르

신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후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사할린 한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지 않는 사할린 동포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어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사할린 후손들에게 주거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모든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들에게 취업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후손들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위로금을 지불하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사할린 동포에 대한 피해보상과 일제강점기 강제적 또는 개인적으로 적립한 저축금, 미지불임금, 보험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 박명석 의장 귀하!

사할린 동포들이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사할린 동포의 국적문제해결, 귀국과 정착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핏줄을 가진 우리 사할린 동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대한민국이기를 기원하며, 한일 양국 모두 과거사에 대한 용기 있는 직시와 이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스크바 사할린 한인연합회 명예회장  
김포시 사할린 동포회 명예회장  
박노영

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36  
번길39 서암주공아파트 103동102호  
E-mail: khimpark@mail.ru  
Skype: vlakonst

## -사할린 동포법, 이산을 넘어 새로운 만남으로-

2020년 4월 29일에 통과된 〈사할린 동포법〉을 살리기 위해 사할린 잔류 한인들은 이 간담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받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는

1. 영주 귀국 대상으로는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고국으로 영주해야만 했던 모든 사할린 한인 1세와 그의 후손(부모 사망 2세)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

다음 단계로

2. 국적 관련 사항에 대해

2.1 영주 귀국 대상이 되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허가를 줄 것.  
2.2 영주한 "사할린 동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한 경우는 외국 국적을 포기 시키지 않도록 부탁할 것.  
→ 복수국적.

2.3 영주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사할린 잔류 1세와 2세들에게도 국적 선택에 관한 권리를 주어져야 한다는 것.

2020.11.05.  
사할린 한인 이산가족협회 명예회장 이수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1로 295  
2410동 1201호(휴먼시아)

## 호 소 문

인천광역시

2020.10.26

외교부 재외 동포과 외교 부장관님께.

2020년은 광복절 75년, 한-러 수교 30년, 일제 강점기 82년, 그리고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7305, 2020.5.26 일 공포: 2021.1.1. 시행)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의미 깊은 해입니다. 사할린 특별법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자 이 호소문을 올립니다.

1. 2021년도 이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문제:

사할린 특별법에 의하면 2021년 한국 영주 귀국 대상은 사할린 동포 1세, 직계비속 한 명과 그 배우자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사할린 동포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고 국가다운 나라에서 있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위법, 위헌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결정을 반대합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못 지켜서 82년 전에 강제로 끌려간 사할린 동포 1945년 8.15 이전은 1세대. 그럼 2, 3, 4세는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사할린 동포라고 생각합니다.

2. 사할린 동포 4천 여명 중 2천 명이 이미 한국에 영주 귀국해서 헌법 제3조 제2항의 < 피해구제 >에 잃어버린 국적 선택권을 이용해 복수국적을 취득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영주 귀국할 모든 사할린 동포(65세 미만)들에게 러시아 국적 포기 안하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 취득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3. 2021년부터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 1세와 그 동반 가족을 위한 한국 적응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한국어 프로그램, 직업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정착 적응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독일 형)

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 사람 사는 세상 >이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 2조 1항 < 사할린 동포 >를 현재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해 주십시오! 제2조 제2항의 < 동반 가족 >의 범위를 제 1항의 당사자와 반드시 동반하는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외교부 장관님

사할린 동포 1세와 그 모든 후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 국민의 후손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여 야당 모두가 하나되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시행하기 기원하면서

사할린 동포 1세와 그 후손들의 영주 귀국 문제에 관한 국적문제, 한국어 교육, 정착 및 취업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할린 특별법 시행 관계자 여러분께 건행을 빕니다.

56년차 교사  
러시아 아리랑 본부장  
사할린 한국어 교육 협회 부회장 공노원.  
주소: 인천 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515동 605호  
E-mail 주소: Con2459@mail.ru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 Ли Е Сик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спецприза конкурса фото и видео контен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честь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рганизовала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ий контент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т.д. в соцсетях (конкурс фото и видео контент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июля по октябрь 2020 г.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9 человек, было подано 157 работ на темы: «Корея, которую я знаю», «Знакомство с корейской 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ро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рея-Россия (Сахалин)». 9 человек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и призерами. Первое место присуждено Че Надежде, второе – Чан Тэхю, третье – Кан Бок Суги.

Особо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премия за достижения) был присужден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Ли Е Сик, который широко освещает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нима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фотоинформаци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Началь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Квак Ки Донг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родных дипломатов», коими стали и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контента. Он пожелал не терять интерес и любовь к Корею, и впредь содей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тать истинными посланникам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канцеляри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ей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Разрозненная семья, созданная Кореей

Если честно сказать, я никогда не ставил вопрос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только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в отрыве от других поколений. Наоборот, я всегда просил, не разбивайте наши семьи, навязывая между членами наших семей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ую зону, подобно 38 параллели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Но то что, как решается на сегодня наш вопро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можно назвать только геноцидом над своим народом, над своей нацией. Если это не геноцид то что является геноцидом?

В течении ни одного года, ни одного десятилетия, а в течении десятков лет наши родители бились, чтоб Корея открыла им дверь, желая найти покой на своей Родине, на своей земле, но так и не получив ответа, ушли в иной мир в чужой стране. На сегодня уже мы, поседевшие старики, в течении 30 лет стучимся в дверь, чтоб Корея пустила нас и при этом просим, чтоб не делила нас на поколения и не создавала новые разрозненные семьи. Но то, что с нами делает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икак нельзя понять здравым умом и сказать, что они поступают правильно с нами и нашими семьями. Не может быть оправдания таким действиям.

Мы знаем, что такие разрозненные семьи, которые на сегодня создаю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не создавала ни одна страна в мире.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ую смотрели и слушали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мы видели, что люди, которые собрались, чтоб помочь нам в нашем деле, не до конца сознавали, что они делают с нами и нашими семьями. Атмосфера совещания показала, что люди механически

выполняли за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и не сознавали, что собрались, чтоб разбивать наши семьи и разрушать семейные узы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тьми,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основой бытия здоровой семьи. Такие вещи не делали с нами даже японцы при оккупации Кореи. До чего докатилась Корея, что вместо японцев сами корейцы занимаются экзекуцией над своим народом. Нам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бы знать, почему в Корею не понимают, то что они делают с нами - это постыдное дело для норма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Это в конце-то концов уголовно наказуемое дело в масштабе человечества во всем мире. К нашему большому сожалению, из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корейцев, никто не чувствовал этого стыда, эт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ни не сознавали, что им будет стыдно, когда поймут, что они делали с нами и с нашими детьми и внуками. Однозначн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если на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ечь шла бы о разделении семей из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то реш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о бы совершенно иным. Нам было стыдно сознавать и смотреть на это. Возникает невольный вопрос, в чем кроется истинная причина, что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в течении 75 лет, Корея не може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внятного ответа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не слышал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Коре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 11-12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не позволяет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30 тысяч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Сахалина? Или Корея до сих пор никак не может своим сознанием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Японской политики ассимиляции (합방 정치). (В те годы безвольные

Корейцы жили по принципу, если поймался, значит завербовали, если смог избежать вербовки, значит, повезло ему,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кореец не очень беспокоился, что будет с ним завтра, так как это завтра не зависело от него). Наподобие такого равнодушия просматривалось на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Так или иначе, если отнестись к нашему вопросу, по-человечески, мы должны знать, есть ли какие-то оправдательные объяснения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что они в течении 75 лет не могут решить наш вопрос? Возникает и такой вопрос? Неужели 50-миллионной Корею нет сил, чтоб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30 тысяч (0,06%)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прашивается, в чем кроется секрет такой бессиль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Даже если вс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на сегодня прожив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и на материке, согласились бы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в Корею, то это количество не превышало бы даже 0,1% от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РК).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все знаем, что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именно вспомнит, когда и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не решался наш вопрос, и кто принес нашим родителям и нам невосполнимую боль в течении 75 лет. Спрашивается, чего на сегодня не хватает Корею, чтоб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при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збивает наши семьи, создавая новые разрозненные семьи? Самое неприятное - это то, что все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исходят из-за равнодушия к человеческим судьбам, из плена которого сами освободились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На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должен быть однозначный ответ.

С уважением И ЧЕИ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 Таинственный мир, где деревья сказочно зеленые

В свет вышел сборник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Волшебный родник». Это великолепно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ое издание для детей, второе по счету за более чем восьмидесятилетнюю истор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 и Средней Азии. Книга нашла своего читателя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ТО «Кахак», 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я личной поддержке Виссарион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ака, передает газета «Корё ильбо», Казахстан.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уникальна по своему содержанию и несет на себе отпечаток древнейшей эпохи зар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и этом сказки имеют много общего со сказкам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Всего в сборник вошли 15 произведений – о волшебстве, о животных, о победе добра над злом, великой силе любви, народной смекалке. Планируется выход второй части с изданием следующих 15 сказок.

**В чем уникальность издания «Волшебный родник»?**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тема сказки волнует всех родителей,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в чьих руках будущее детей. Через сказку открывается магия ее



Иллюстрации художника Виктора Муна. Перевод Константина Югая.

доброты, добр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в самой жизни, в самой череде будне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 70-х годов Казахстан не видел именно такого сборника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А без этого знание культуры своего народа будет не полным.

По словам Константина Югая, переводчика книги, самая главная сложность при переводе – сохранить максимально оригинал, передать тот дух, то настроение, которое есть в оригинале. «Что

касается сказки, то меня вдохновляли собствен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из детства. То есть я понимал и понимаю сейчас, как важно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иметь вот такую книжку-спутницу в детстве. Помню свою бабушку. Она была 1900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мы, дети, к ней постоянно приставали: «Бабушка, расскажи сказку...». И она терпеливо рассказывала, уводя нас в тот таинственный мир, где деревья сказочно зеленые, где сам мир окрашен совсем в другие цвета, где вода плещется совсем по-другому, а если есть зло, то оно побеждается добром, трудолюбием и мудростью», вспоминает Константин. Получается, его труд переводчика посвящен и его детству, его старенькой полуглухой бабушке, его личному счастью, которое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 внуках.

«Я давно мечтал о подобной работе, которая с головой уведет меня, взрослого художника, в удивительный мир корейской сказки», – рассказывает художник Виктор Мун, – и вот это случилось. Сколько себя помню, мне всегда не давала покоя мысль о том, что мы не дали до сих пор нашим детям всплыть подобного. В памяти всплывает моя школа и затрепанный до дыр старый сборник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Мы

перечитывали про маму-ласточку, про других героев, которых понимали и которым сопереживали. Мы проживали сказку всем своим существом, но мне до сих пор жаль, что в моей памяти сказка осталась в образе истрепанной книжки».

«Хорошо, что моего детского воображения художника хватил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восоздать» мысленно то, чего не могла дать мне та книжка. Так вот,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я, как художник, могу сегодня сказать, что помог ребятишкам обрести такого «красивого» друга, каким получился новый сборник – не переизданный, а воссозданный из самого истока корейской духовности. С другой –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будут теперь име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более яркое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так богат своей культурой», – говорит Виктор Мун.

«В этих сказках есть все: и юмор, и неистребимый оптимизм. Мы все это постарались передать теми средствами, которые были в наших руках и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Теперь ждем суда читателей».

Автор: Тамара ТИН  
Источник: <http://www.arirang.ru/archive/kore-ilbo/2020/KI.11.09.2020.pdf>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о ВРЭП

15 стран Азии, в том числе 10 стран-чл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государст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СЕАН), РК, Китай, Япония, Австралия и Новая Зеландия, подписа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Соглашение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региональ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ВРЭП). Это крупнейшее в мир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объединяет страны, чей совокупный валовой внутренний продукт составляет треть мирового.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Соглашение о ВРЭП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е мегарегиональное торг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е объединяет развитые, развивающиеся и наименее развитые страны региона». Докумен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тмену ряда экспортных пошлин.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подписание ВРЭП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Новой южно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заявило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ускорить внутренние процедуры ратификации документа, чтобы он мог вступить в сил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глашение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впервые подписано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

##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GL Rapha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 российскую вакцину против COVID-19

Южнокорейская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GL Rapha будет ежегодно производить более 150 млн доз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ы Sputnik V против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ятницу в Российском фонд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чнётся в декабре этого года, а вакцинация – в янва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ервый промежуточный анализ вакцины Sputnik V третьей фазы клини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в Росси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её 92-процентн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Заказы на вакцину Sputnik V поступили из более чем 50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з РК, и превышают 1 млрд 200 млн доз. При этом 500 млн доз могут быть произведены за пределами России по контрактам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Вакцина Sputnik V разработан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центре эпидемиологии и микробиологии имени Гамалеи.

## РК предоставит странам Меконга 1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окупку вакцины против COVID-19

РК предоставит странам Меконга 1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окупку вакцины против COVID-19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ы COVAX,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акцин в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ах.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13 ноября на ежегодном саммите с лидерами стран реки Меконг – Вьетнама, Камбоджи, Мьянмы, Лаоса и Таиланда. На этот раз саммит проходил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обещал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странами Меконга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эпидемий. Он высоко оценил уровень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который аналогичен уровн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есмотря на закрытие границ и дру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Мун Чжэ Ин обещал поддержать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сохран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реды реки Меконг, управление её в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Он добавил, что Сеул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привлечь к проекту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ие как ООН.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отношений д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ожет официально преподаваться в школах Росси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фициально включён в перечень рекомендуемых к изучению в качестве втор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ах. Это инициатив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новой политикой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на 2021 год, объявл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17 октября. Об этом в прошлый вторни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К в Москв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сол Ли Сок Пэ сказал, чт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имволических мер, подчёркивающих важность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России более 9 тыс. школьников в 85 школах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ачестве втор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 В преддверии ЕГЭ усиливаются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школах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числ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народовало в воскресенье план усил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 школах перед ежегодным еди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экзаменом. Первонач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й на 19 ноября, он был перенесён на 3 декабря в связи с неоднократным переносом начала учебного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Ю Ын Хе, выступая на брифинге в Сеуле, проверки соблюдения школами карантинного режима начнутся 19 ноября. (RKI)

## Korean Air и Asiana Airlines объединятся в гигантскую авиакомпанию

Крупнейш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Korean Air получит контроль над вторым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м страны Asiana Airlines. Созданная путем объединения еди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в мире, войдя в десятку самых крупных перевозчиков планет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причиной для слияния двух авиакомпаний стали серьезнейшие проблемы Asiana Airlines, которая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а от кризиса авиационной отрасли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а также предыдущие проблемы компании, уверенно шедшей к банкротству. Ранее холдинг Kumho, который владеет Asiana, уже пытался продать компанию группе местных инвесторов, но сделка в итоге расстроилась, а потому пришлось искать ново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второй крупнейш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и передавать ее под контроль кредиторов.

В итог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ело заседание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анка Korea Development Bank (KDB),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ет группу кредиторов, контролирующей сейчас оказавшуюся в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Asiana Airlines.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окупке Korean Air 30,77 процента акций Asiana Airlines. По итогам сделки Korean Air будет владеть 63,9 процентами акций Asiana. Общая сумма операции по финансовому спасению Asiana составит около двух с половиной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ок. 2,3 млрд. долл.). Сделка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через компанию Hanjin KAL, которая владеет Korean Air. При этом Korean Air продаст свои акции на 2,5 триллиона вон, а банк KDB потратил полмиллиарда вон на покупку этих акций, а также вложит еще 300 млрд вон в конвертируемые облигации Hanjin KAL.

Итогом сделки станет объединение Korean Air и Asiana Airlines, а также слияние трех лоукостеров - Jin Air, Air Seoul и Air Busan, которые принадлежат двум этим авиакомпаниям. На основе всего этого появится круп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Korean Air занимала 19-е, а Asiana Airlines - 29-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показателям объемов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и пассажиров, а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парка самолетов Korean Air находится на 18-м



Фото: EPA-EFE/YONHAP SOUTH KOREA OUT

мест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овая единая компания, которая сохранит название Korean Air, войдет в десятку крупнейших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планеты. Совокупная стоимость имущества и активов оценивается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на уровне 4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или 36 млрд. долларов. Если же объединить показатели объемов грузовых и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Korean Air и Asiana, то это новый авиагигант Южной Кореи вообще будет на седьмом месте в мире.

Эксперты правда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на пути слияния компаний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сложности. Против объединения выступили профсоюзы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негативно относятся к планам и в холдинге Hanjin. Кроме того, для сделки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одобрение и со стороны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 как новая компания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доминировать на рынке внутренни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Впрочем, судя по настро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анков-кредиторов и большинства остальных ключевых участников, объединение скорее всего состоится, а Asiana Airlines после более 30 ле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исчезнет,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ногие считали ее по уровню сервиса лучше, чем Korean Air.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превратится в парк



Власти Сеула приступили 16 ноября 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с целью её превращения в общественный парк. Транспортные полосы будут перенесены в восточную часть площади перед посольством США, причём их количество в каждую сторону увеличится с нынешних пяти до семи-девяти. Парк займёт западную часть площади перед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еула, работа над планом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завершилась в сентябре после четырёх лет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жителями столиц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Стоимость работ составит 10 млрд 100 млн вон (9 млн 100 тыс. долларов). Перенос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олос завершится к февралю, 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арка продлится с мая по октябрь будущего года. В нём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адить более ста видов деревьев и цветов. Чтобы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водителей, полосы будут закрываться для движения поочередно.

KBS World

##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РК и Японии

10 ноября состоялся 16-й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РК и Японии в Сеуле».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под лозунгом «Станем едины». В ходе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ие и японские артисты выступили с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Его участники дали друг другу обещание сохранять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нерешённые вопросы в отношениях двух стран, касающиеся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и проблем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анный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с 2005 года, являясь символом дружбы двух народов.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 связи с ситуацией вокруг COVID-19.

## Более 70%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штраф за нарушение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Более 70%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штраф за нарушение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Он был введён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13 ноября, и его размер составляет 100 тыс. вон (90 долларов).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13 но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по заказу YTN среди 500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8 лет, 72%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штраф является справедливой мерой наказания. 24,8% считают его чрезмерным, а остальные 3,2% затруднились ответить. Введение штрафа поддержали большинство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истраст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4,4%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KBS World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Три новых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а прибыли на Сахалин

Их произвели с учетом пожеланий сахалинцев. Транспорт получил удобные мягкие кресла, между которыми установлены розетки для подзарядки телефонов и ноутбуков. Также в поездах появилась улучшенная система отопления.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е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планиру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дальних маршрутах –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Поронайска и Томари. Также один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острова. Технику рассчитывают пустить на линию уже в декабре.

–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с комфортом перемещаться по острову. Потому при создании новой модификации «Орланов», мы, прежде всего, ориентировались на мнения и пожелания жителей. РА-3 получили комфортные кресла и розетки, в вагонах стало еще теплее. Надеюсь, все это сделает поездки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особенно длительные, еще более удобным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ва трехвагонных и один двухвагонный «Орланы» произвели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Метровагонмаш», которое расположено в городе Мытищ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ути на Сахалин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находились почти три с половиной недел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специалисты оснастят транспорт навес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его доставляли отдельно, чтобы не повредить.

– Сейчас нам предстоит проверить узлы и агрегаты на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и провести обкатку техники, – пояснил Сергей Нагорный, сотрудник завода «Метровагонмаш».

Проект по обновлению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на Сахалин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переданы в лизинг «Пассажирской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Напомним, новый для Сахалина вид транспорта начал курсировать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ле перешивки узкоколейк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РА-3 выполняют рейсы по пригородным маршрут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Томари, Томари–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Корсаков.

Кроме того, вскоре на лин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Ноглики» встанут 18 комфортных пассажирских вагонов.

### В Холмской больниц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ели экстренную проверк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16 ноября направил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комиссию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водом для проверки стали жалобы врачей на условия работы.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здрава встретились с коллективом больницы, уточнили наличие специальных костюмов, а также изучили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медперсонала.

Комиссия посетила реанимационно-анестези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ся лечением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За последние 16 дней сюда поступили 16 пациентов с пневмонией. При этом коронавирус не был подтвержден ни в одном из случаев. Всего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здесь выявили тре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ей. Они были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направлены в ковидный госпиталь Долинской ЦРБ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лечения.

Комиссия подтвердила, что з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отрудниками Холмской больницы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ыплатили 1 миллион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держек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редств не выявлено.

Тем не менее, сотрудник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прове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оверки, чтобы изучить размеры выплат каждому сотруднику больницы, работающему с пациентами с COVID-19.

Еще один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факт – в разны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среди медперсонала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8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По каждому из них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 целью установления фак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заражения.

При это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врачей в учреждении хватает всего на двое суток. Принято оперативное решение по доукомплектации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больницу поставят около 3 тысяч костюмов повышенной защиты, тысячу респираторов и 200 очков. На период доставки сотруднико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обеспеч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защиты.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име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й запас кожных антисептиков и дезинфицирующих средств.

– Перчатки дают нам в достаточном количестве. Если чего-то не хватает, мы подаем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заявку. Это рядовой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всегда можно решить,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клиник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ей ЦРБ Ирина Баландина.

Члены областной комиссии отметили правильную маршрутизацию пациентов в Холмской ЦРБ. К примеру, больные с пневмонией размещаются отдельно от других пациентов, чтобы не было пересечения потоков.

–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й режим соблюдается в ЦРБ в необходимом объеме. Санобработка вед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рмативами. В каждой реанимационной палате размещены дезары, – подчеркнула замест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ина Мухина.

Скоро в больницу поставят еще 32 дезара – они уже в

пути. В достаточном количестве имеются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в том числе антибиотики.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 обращения медработников Холмской ЦРБ названы низ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уководства медучреждением и дистанция в общении с персоналом реанимационно-анестез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лавврачу указано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справления всех выявленных проблемных моментов для скорейшей норма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 34 сахалинца представя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Абилимпик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3 по 29 ноября 2020 года пройд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сред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Абилимпикс-2020».

Конкурс впервые состоится в очно-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мут более 2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83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оревноваться они будут на площад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рех категориях: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 77 компетенциям. Эксперты оценят работы конкурсантов как удаленно – с помощью средств визу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так и на местах.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чемпионате представят 34 участника в 22 компетенциях: «Робототехника», «Бисероплетение», «Клининг», «Вязание спицам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вышивание», «Вязание крючком»,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Брошюровка и переплетное дело», «Гончарное дело», «Декорирование тортов»,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Малярное дело», «Поварское дело», «Швея», «Портной», «Ландшафтный дизайн»,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правления и архивоведение»,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Разработка виртуальной и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Сборка-разборка электр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За ходом чемпионата можно следить при помощи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билимпикс»: [www.abilympics-russia.ru](http://www.abilympics-russia.ru).

23 ноября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формате телепередачи. Зрителям обещают показать мотивационные видеоролики,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с популярными артистами, парад конкурсантов и общий флешмоб со всеми регионами-участниками.

*Для справки: «Абилимпикс» – это система конкурс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реди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национальное движение, формирующее инклюзивную культуру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сновными задачами движения является содействи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выпускников и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повышение у них мотивации к развитию профмастерства, вовлечение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 процесс инклюзив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емпионат «Абилимпикс» проводится с 2016 года.*

### Итоги двухлетнег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подвод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отдых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м минимумом – мусорными контейнерами, туалетными модулями, навигацие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стендами, парковкам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или около 13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2019 году обла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уризму утвердило список из 14 приоритет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Холм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Долин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о направления, ведущие к таким популярным местам показа, как: озеро Буссе, мыс Птичий (Великан), маяк Анива, мыс Евстафия и бириозовые озера, Вельмин и Чертов мосты, Восточка, грязевой вулкан в селе Ключи, Клоковский водопад и бухта Тихая, мыс и маяк Слепиковского, лежбище сивучей в Невельске, Пугачевский грязевой вулкан, Три брата и мыс Жонкиер, хребет Жданко, Южное кольцо.

– Сейчас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ах работает 19 туалетных модулей, а к концу года их будет 33, установлено 93 знака навигации. Помимо этого, были закуплены мусорные контейнеры, обустроены тропы на Клоковском водопаде, смотровая площадка и парковка в Томари. Делается э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региона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и удобно отдыхать, – рассказал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Шевченк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рабо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елась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где проходит сразу 4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а. На пути следования маршрутов работает 9 туалетных модулей (еще два появятся до конца года), установлены знаки навигации, беседки, лавки и ур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становлено 6 крытых контейнер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мусора – в районе завода СПГ, в селах Охотское, Озерское, Береговое, Новиково, при повороте на Лесное.

Помимо этого, изготовлены 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стойки с краткими справками о природ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региона.

– Мы часто получаем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зывы о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Все-таки комфорт очень важен в наше время, а элементарное наличие обустроенных зон

отдыха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времяпровождении и настроении турис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рина Голяти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а друг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проката самока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обретение пяти экскурсионных автобусов, двух вахтовых машин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агин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набережных и рекреационных парков,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за два года было выделено около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вершают модернизацию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Учреждение преобразовали в современный кадровый центр «Работа России». В здании провели ремонт и техническое переоснащение, внедрили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ой очереди,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ил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рминалы, позволяющие посетителям получать доступ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электронному сервисам.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сахалинцев по принципу «жизненных и бизнес-ситуаций», которые разработан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ля соискателей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Это позволит уйти от устаревших стандарто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Начнем оказывать соискателям комплексную помощь для решения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й. Это касается вс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стать наемным или самозанятым работником. К примеру, если человеку, чтобы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нужно повыс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пройти переобучение и устроить ребенка в детский сад, то эти вопросы будут решаться комплексно по принципу «одного окна». Теперь процес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эффективнее и быстрее,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Наталья Ковалева.

Также кадровый центр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комплексную помощь в подборе персонал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ервыми заявителями со стороны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танут предприятия-участники нацпроекта по повышению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которые, благодаря бережливому технологиям, добились рос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и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Помещение центра разбито на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секторы. Т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часть необходима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посет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люди будут ожидать здесь своей очереди к специалистам учреждения.

Также в здани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ектор первичного и повторного приема граждан, игровая зона для детей, зона цифровых сервисов, помещение для групповых занятий и консультаций, секторы дл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работы с соискателями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 теперь учреждение оснащено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ой «электронной очереди». В терминале регистрации посетителю нужно выбр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услугу, получить талон с номером и ожидать приглашения на прием к специалисту.

Кроме того, прогрессив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рминалы позволяют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ый доступ к электронным сервисам. Например, в их числе – портал «Работа в России», «Порт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нлайн-инспекция.РФ».

Обновление учреждения также подразумевало переобучение работников и внедрение стандартов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тметим, модернизация важ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ъекта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и поддержка занятости».

### Молодеж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Диалог культур»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2020 году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конкурса является выявление 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талантливых и одаренн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занимающихся творчеством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уникальн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техник, инструментов, приемов и навыков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языках.

«Диалог культур»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зданию молодежного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пособствующего гармонизаци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граждан в стране.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8 номинаций: «Рисунки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тематику»,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искусство», «Национальные виды спорта»,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Блюд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сня», «Национальный танец», «Национальный фольклор».

Конкурс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стоит из 2 этапов: отборочного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Для участия в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в период с 9 по 22 ноября 2020 года необходимо записа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видеопрезентацию своего номер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стюме (длительностью до 3-х минут) и выложить на сайте в выбранной номинации.

В период с 24 по 28 ноября 2020 года 150 участников, прошедших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оект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주 관광지 코스 개선을 위해 2년간 1억 3천만 루블리를 책정

사할린주는 2년간 관광지들의 개발에 따른 결산을 진행한다. 휴식을 위한 명소들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 제반시설 구축으로 주 예산에서 1억3천만 루블리를 투입하여 쓰레기통 구비, 간이 화장실, 안내소, 안내 표지판 설치, 주차장을 완비했다.

2019년 주 관광청은 코르사코프, 홉스크, 토마리, 마카롭스크, 네벨스크, 돌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14지역의 관광 명소를 확정했다.

이들의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으로는 부세호수를 비롯해 벨리칸꽃,아니와 등대,엠프스타피아 꽃, 코발트빛 호수, 벤지민과 초르토프의 다리, 웨스토츠카,클류치 마을의 화산 진흙, 클로코브스키 폭포, 치하야만, 슬레피콥스키꽃과 등대, 네벨스크의 강치 서식지, 푸가첵스크 화산 진흙, 3형제 섬, 존키에르코트, 즌단코 산맥과 남부 핵심지역이다.

현재 19개 화장실이 운영되고 연말까지는 33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93개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통 구비와 클로콥스키 폭포의 산책로와 전망대, 토마리의 주차장도 완비되었다. 4개의 관광 코스가 지나가는 코르사코프 지역에는 주요 부분의 재정비 작업이 이뤄졌다. 석유가스 생산공장구역과 오호츠크, 오제르스크예, 베레고보예, 보위코보, 레스노예로 가는 길 등, 6 지역에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이 설치되었다. 이와 동시에 내년에는 사진 정보로 지역의 자연 비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스쿠터 대여 시스템 구축, 5대의 관광버스 구비, 쿠릴 지역에 2대의 관광 차량, 다진스크 온천과 해변 및 오락 휴식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2년간 3억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 사할린, <동양. 다른 미>전시 개최

지난 1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동양. 다른 미>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동양 여성들의 의상, 보석과 악세서리, 일상생활의 용품 등 120여 점이 출품되었는데 대다수가 국립동양 박물관(모스크바)에 소장품들이고 일부는 주 미술박물관 소장품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 동양 국가들의 여성의 미를 전하는 전시회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전시회는 사할린에서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인도에 대한 전시품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전시회 개막 참가자들은 이날 인도 여성들의 특징과 생활방식을 비롯해 동양 여성들의 매력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사할린주 미술박물관과 모스크바 동양박물관과의 합작 기획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양측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미술관 측이 밝혔다.

<동양.다른 미>전시회 기획의 담당자는 주 미술박물관 수석 연구전문가 하이 올라가이다. 이번 전시회는 12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취재: 배순신, 이예식)



# 이모저모

## '소비에트 시대의 사할린' 사진 전시회 주 일반 과학 도서관에서 열리다

'소비에트 시대의 사할린' 사진 전시회가 주 일반 과학 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전시된 사진들은 종전 이후 사할린에서 촬영된 사진들이다.

전시된 사진들 중에는 인물 사진, 이들의 노동하는 일상과 성과, 사할린의 평화로운 생활과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사할린의 모습 형성에 있어 기억될 만한 삶의 변천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다.

전시물들은 주 일반 과학 도서관 2층에 전시되어 있으며 2021년2월 8일까지 열린다. 입장은 무료이고 전화 문의는 +7 (4242) 45-25-38가능하다고 주 일반 과학 도서관 측이 전했다.

##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 советский" открылась в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 советский" начала работу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графии, сделанные на острове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Среди материалов выставки – снимки людей, их трудовые будни и достижения,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оторых запечатлены процесс переход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е в мирное русло и создание того облика Сахалина, который сохранился до наших дней.

Выставочные стенды расположены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СахОУНБ.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8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38,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 '추억의 멜로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연

11월 14일, 제5회 북고풍 음악 축제 「추억의 멜로디」가 사할린 민속예술 회관에서 갈라 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처음으로 사할린의 뛰어난 출연자들이 과거 학창시절 작곡되어 합창했던 노래들을 불러 노래의 따뜻한 음색은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이번 행사는 전승 75주년을 기리는 가운데 노래 경연을 조성하지 않고 진행했다. 주내 7개 지방자치단체 - 아니와, 돌린스크, 네벨스크, 포로나이스크, 티모브스코예, 홉스크 지구, 유즈노사할린스크 - 의 참가자들은 자체적으로 곡을 해석

하기도 하고, 과장된 기법 없이 1980년대까지 작곡된 모두가 좋아하는 곡들을 선보였다.

갈라 콘서트의 영상은 11월 18일 사할린주 민속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 "Незабытые мелодии" прозвуч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4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ала-концертом завершился пятый по счёту фестиваль ретро-музыки "Незабытые мелоди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лучшие остров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нание великой певческой и композиторской школы прошлого – и мастерски пробудили самые тёплые нотки ностальгии.

На этот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без конкурс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и было посвящено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Участники из 7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 Ани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представили собственные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чтения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культовых и всеми любимых композиций, написанных не позднее 1980 года.

Видеозапись гала-концерта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18 но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승리자들' 연감 제6권 발표

'승리자들' 연감 제 6권 발표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이 책에는 대조국전쟁 사변의 증언자들과 참전 용사들의 친족들이 전하는 얘기가 담겨 있다. 전통적인 행사로서 6년간 사할린의 사회는 이런 축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진행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과 사할린주가 실시하는 65세 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실제 참석자 수에 영향을 끼쳐 참석자는 예년에 비해 3배 줄어든 가운데 스톨리차 강당에 50여 명이 모였다. 올해 '승리자' 연감은 75년 전 대조국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소비에트 연방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라는 2개의 역사적 사건들을 주제로 했다.

책의 겉표지는 '레이흐스탁 승리의 깃발'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꽃힌 소비에트 깃발' 사진이 상징으로 장식되었다. 2020년도 연감은 이야기 수로는 가장 많으며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해방 작전으로 소련의 영웅 칭호를 받은 40여 명이

상의 이름들이 수록되었다.

7년간 '승리자' 기획의 실현으로 연감 속에는 180여 명의 이름들이 영구히 남았다.

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에 애국 단체와 '포베다(승리)' 역사기념박물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지역 정부도 지원했으며, 사할린주 정부는 제 6권 출간에 재정적 후원을 했다. '승리자들' 기획의 지도와 저자는 사할린주 출신의 주두마 의원 게오르기 카를로브다.

##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шестого альманаха "Победит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шестого тома альманаха "Победители". В книге собраны истории о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рассказанные свидетелями тех событий 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етеранов. Мероприятие традиционное, за шесть л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уже привыкла к формату праздничного торжества, но в этом году всё прошло необычно.

Эпи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действу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для людей старше 65 лет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лияли на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Это в три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ые годы.

В этом году альманах "Победители" посвятили дву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ям — 75 лет назад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заверш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Фотографии-символы "Знамя Победы над Рейхстагом" и "Советский флаг над Южным Сахалином", украсили обложку книги.

Альманах 2020 года стал самым большим по количеству историй. В сборник попали имена более 4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и тех, кто был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за операцию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За семь ле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оекта "Победители" на страницах альманаха увековечены имена более 180 человек. В рабо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о героях войны включились специалисты ММК "Победа"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Так, шестой том вышел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тором 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проекта «Победители» является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еоргий Карлов.

(8면에 계속)

# 이 모 저 모

(7면의 계속)

## '환상의 섬들' 미술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

11월 20일(금) 17.00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미술학교(워그잘나야 거리 5a) 전시실에서 '환상의 섬들' 시 미술대회가 개최된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의 목적은 미술 분야의 영재들을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미술 창작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여러 교육기관의 교사 간 창작 경험 교류와 협력에 있다. 이 대회는 문화관광부 대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가 주최했다.

이 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사할린주 남부의 흄스크, 코르사코프, 돌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65호 리체이, '쉐데브르' 미술학원, 주 중심의 아동미술학교 등 8개 교육기관이 참가 신청을 했다. 참가자 연령은 6세부터 18세까지며 이들은 '회화적 미술', '공예 장식 미술' 부문에 미술 작품들을 제출했다. 이 작품들은 고무점토, 점토, 나무, 종이, 형갈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그래픽, 회화, 어플리케, 콜라주, 유리 페인팅, 염색, 스크래치 보드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10세-18 세 연령의 참가자들은 추가적으로 수채화 물감과 포스터 물감을 사용한 '정물화' 부문에 작품을 제출했다. 참

가작은 모두 185점이다.

대회 예선전에 참가한 모든 작품들을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개최 후 대회의 심사위원들은 12월 초에 열릴 결선대회에 올릴 작품을 선정하게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사할린주 문화 부문 종사자들과 러시아 연방 전문 교육기관의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미술대회 참가자들은 수채화 물감이나 포스터 물감 중 선택해 그림을 그려 대회 과제를 성취해야 한다. 전체 미술대회의 결선 결과는 12월11일 전시실에서 전시회 폐막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회 주최 측이 밝혔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ует конкурс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тров фантазий"

20 ноября в 17.00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лица Вокзальная, 5а)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городского конкурса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тров фантазий". Этот конкурс ежегодный, цель его – оказание поддержки одаренным детям в област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детского и молодеж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образитель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творческого обмена опытом между педагогами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курса явля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лице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Заявки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подали восем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южной з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етские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Холмска,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ивы, лицей №65, изостудия "Шедевр" и детск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школа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от 6,6 до 18 лет. Все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в номинациях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выполненные в различных техниках – графика, живопись, аппликация, коллаж, роспись по стеклу, батик, воскография и др., в различных материалах (пластилин, глина, дерево, бумага, ткань и др.). Участники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от 10 до 18 л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ставили работу в жанре "Живописный натюрморт" (акварель, гуашь).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 – 185.

Все эти работы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на выставке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первым этапом конкурса.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жюри конкурса приступит к отбору работ для втор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 творческого,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В составе жюри – заслуженные работники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Ф, преподаватели учрежд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частникам 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едстоит выполнить конкурсное задание живопис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по выбору (гуашь, акварель).

Результаты второго этапа и конкурса в целом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на за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 11 декабря,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http://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Загрузите в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